

#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에 대한 고찰 -다문화연구에의 의의-

류영진  
(규슈산업대학)

1. 들어가며
2. CAP의 개괄
  - 2.1. CAP의 이론적 관점
  - 2.2. CAP의 글쓰기
  - 2.3. CAP의 평가기준
  - 2.4. CAP의 연구현황
3. 다문화현장 연구에 있어서의 의의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Richardson과 Pierre에 의하여 제안된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문화현장 연구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를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트랜스포머티브 패러다임 사조에 맞춰, 정형화되어가는 문화기술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등장하였다. 다양한 문학적 서술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읽는 이에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쉽사리 받아

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이 다문화현장 연구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로, 첫째, 분석에 있어서 비밀 유지 및 보호에 특화. 둘째, 감수성과 공감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효과적인 매개체. 셋째, 연구결과와 공유와 발신 및 생산물의 환원, 연구자와 당사자들의 자각 및 행동의 변화 유도하는 연구실천. 넷째, 비평 등 문학적 방법론과의 융합이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에**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 문화기술지, 문학적 서술, 다문화연구 방법론, 연구실천

## 1. 들어가며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그의 저서 『소비사회학의 탐색(2007)』의 서문에서 “읽히기 위해서 쓴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최종희(2016: 308)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학문을 수행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사회와 연결시켜 확장하고, 공적 이슈를 창출해야 할 책임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학술적 성과들이 단순히 학계에서 돌려보는 글로써 종결되지 않고, 어떻게 사회와 공유되고 삶의 개선에 공헌하게 할 것인가? 특히 학술적인 탐구와 현장적 실천의 경계에 있는 다문화 현장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페이퍼는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Creative Analytic Processes, 이하 CAP)’<sup>1)</sup>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다문화연구 현장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의의를 간단하게 짚어보는 리뷰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경험을 환기시키고, 생각을 유도하는 글쓰기의 방법으로 주로

1) Richardson(2011)은 자신의 저서 서두에서 CAP를 소개하며 Creative Analytic Processes Ethnography라고 표기하고 있다.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응용 가능한 방법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이후 부분에서는 CAP만을 약어로 사용하여 문화기술지 이외에도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슬기, 이원일, 여인성(2013: 46)은 원표기 전체를 사용하며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 번역을 우선 사용하고자 한다.

문학의 형식을 차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는 글쓰기 방법이다 (Markula, Denison 2005). 덴진(2014: 961)은 “감성적 글쓰기도 학문적 글쓰기에서 의미 있다는 믿음 하에 문학적 전통을 활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CAP는 감각적, 정서적, 미학적, 가치론적 가치를 지닌 살아있는 경험을 재창조하는 것이고, 독자가 이를 읽고 정서적으로 반응하기를 기원(최종희 2016: 308)하는 글쓰기이다.

본 페이퍼에서는 CAP를 제안하고 또 지속적으로 방법론을 발신하고 있는 Richardson의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CAP의 출발점이기도 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에서 어떤 형태로 기원하였고, 어떠한 학문적 시각을 가지는지를 간단히 살피고, CAP의 글쓰기, 평가기준, 연구현황 등을 짚어본다. 그리고 다문화현장에서 CAP 활용이 가질 수 있는 의의들을 살펴본다.

아직 한국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문화현장 연구와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적 도구를 구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지적작업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다문화현장이 다양한 층위와 결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어느 한 특정 각도에 대응가능한 도구로서 CAP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추후에 CAP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참고 가능한 기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라본다.

## 2. CAP의 개괄

### 2.1. CAP의 이론적 관점

CAP는 기본적으로 ‘문화기술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문화기술지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무렵 문화인류학의 태동기에 타문화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묘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어 오늘날까지 확산되고 발전되어 온 질적 연구방법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연구대상 집단의 내부자적 논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 정리 및 전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기록물을 생성해내려는 노력으로부터 문화기술지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56-57). 문화기술지는 인류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 및 현장연구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과학 내의 주요 방법론으로서 다루어지며 문화기술지는 정형화된 형식과 메타포적 제한이 점점 강화되어 왔다. Van Maanen(1988)은 전통적인 문화기술지가 따르는 서술의 습관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였다.

- ① 경험에 기반한 권위와 저자성 : 저자로서의 나는 ‘그곳에 있었다’, ‘나는 연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하여 서문에서만 잠깐 드러난다.
- ② 다큐멘터리 스타일 : 전형적 활동이나 패턴, 구성원을 표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다수 활용한다.
- ③ 그 문화의 구성원의 시점에 대한 집착 : 인용, 설명, 속어법, 해당 문화의 속어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 ④ 해석의 전능성 : 사실에 기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타적 관점에서 전능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또한 Richardson(2011: 927-928)은, “사회과학에는 습관이 있다. 이들 습관에 따르면 사회과학의 중핵적인 전문지에 논문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화기술지도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지 않는 제3자의 목소리를 채용함으로써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표상의 진실성을 주장하여 왔다. 연구자들은 서론이나 방법론을 설명하는 절에서 이를 설명하여 신용증명을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과학의 권위라는 레토릭은 문화기술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적 연구 텍스트에도 적용되고 있다(Richardson 2011: 928).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문화기술지 연구의 대가들이었던 Geertz(1973; 1988) 및 Clifford와 Marcus(1986)가 기존의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철학적, 방법론적 주류 경향에 의문을 제기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문화기술지적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래의 문화기술지 실천이 질적 연구의 표준이고, 알려져 있고, 인정받았고, 바람직하고, 이미 검증 받은 방식이라는 인상을 강화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는 지금은 불필요하고, 실수이고, 해롭다고까지 생각한다 (Richardson 2011: 930).”

CAP는 이러한 고정화된 문화기술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문화기술지가 정해진 족쇄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양하고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질적 상황과 현상을 포착하지 못하고,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인정되고 공유되는 저술로서만 종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고(Chilton, Leavy 2014; Ricardson 2011),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술 및 글쓰기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민 속에서 Richardson과 Pierre(2005)가 본격적으로 CAP를 제안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과 트랜스포머티브 패러다임의 대두가 작용하였다. 학술연구의 관행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과 더불어 철학, 인류학, 신학, 사회학의 지식분야와 문학과 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얕’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는 얕과 연구에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으며 이들 모두 합법적이고 어느 하나의 방법이 가장 궁극적이거나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고현정 2013: 38-39).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회의(懷疑)의 관점을 포함하고, 어떠한 것을 파악함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의 공존을 인정한다. 어떠한 절대적인 방법론이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꿩똥는 절대적인 방법론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통념을 깨어준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단위를 “과학적인 객관성이라는 위험한 메타적 설명을 회피하면서, 더하여 특정 상황에 처한 화자(situated

speaker)로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알고 말할 수 있는 개체들(Richardson 2011: 929)”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글쓰기는 삶의 방식이며 발견과 분석의 방법이자 연구주제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도록 촉구한다(Richardson 2000).

더불어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방법론에 대한 고민 자체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트랜스포머티브(변용중시) 패러다임의 등장이다. 트랜스포머티브 패러다임은 비평이론이나 페미니즘 이론, 참가형 분석법 등과 연관되는 다양한 이론이나 방법을 포괄하는 패러다임이다(Mertens 2010). 1980년에서 90년대에 걸쳐서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사회의 주변적 사람들이나 사회정의, 차별, 억압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적합한 분석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비평으로 부터 트랜스포머티브 패러다임은 탄생하였다(Creswell 2014). 따라서 조사 분석 활동 중에 사회속의 억압에 대항하는 정치나 정치적 변혁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시점을 가진다(Mertens 2010).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지식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하여 변화의 씨앗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며, 대상의 개선과 변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리고 연구자와 대상자가 함께 성장하는 형태의 방법론을 추구하게 만든다(김희재·류영진 2018). 이러한 연구방법 패러다임의 탄생은 문화기술지의 저술자가 스스로도 사회문제에 함께 빠져들어 감수성을 가지고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 나름의 변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론, 가치론 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내부자적 관점이라는 것이 연구결과물의 약점이 아니라 다양한 내부자적 관점의 결과물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긍정하게 된다.

## 2.2. CAP의 글쓰기

“독자(및 평자)는 연구자가 지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며,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저자는 자기(self)를 어떻게 다루어야 ‘지식을 아는 자(knower)’로서, 또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자(teller)’로서의 입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문제에는 주관성, 권한(authority), 저작성(authorship), 재귀성(reflexivity)등이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 여기에는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며 ‘표현형식’도 문제가 된다(Richardson 2011: 930).”

CAP는 문화기술지 연구에 그 근본을 두는 방법론으로, 사회과학적 글쓰기가 배제하는 사회의 실상을 다양한 형태로 회복하는 것. 연구자 자신도 함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트랜스포머티즘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 탄생, 정리되어 왔다. 소설, 희곡, 시, 낭독문 등 다양한 문학적 레토릭을 차용하는 것이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에 따라서 종래의 사회과학이 포함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인간 이해의 모드(mode)를 발전시키고(츠지모토 2020: 38), 실제 사회과학적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 더 많은 독자에게 전달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에 큰 의의를 두는 방법론이다.

CAP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리한 Richardson(2011: 931)에 의하면, “문학적인 수법들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경험을 재현(re-create)하고, 감정이 풍부한(emotional) 반응을 불러올 수 일으킬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글쓰기를 통한 “자기를 창조하는(self-creation) 프로세스가 자기재귀적이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차용 가능한 문학적 기법들의 대표적인 예로 “극적인 상기, 강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묘사, 실체를 가진 등장인물, 통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어투, 어미와 운율의 맞춤, 복선, 인유(引喻), 과거나 미래로의 갑작스런 전환, 분위기의 고조와 하강, 제유(提喻), 대화체, 내적독백 등(Richardson 2011: 931)”을 들고 있다. 일부러 문학적인 서술법을 채택함으로써 사회현상의 이해에 대하여 ‘결정화(crystallize)’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sup>2)</sup> 단계적이고 시계열적인 논리적 이해가 아닌 동시적이고 총화적인 깨달음을 추구한다.

2) Richardson(2011)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이해방법을 ‘삼각 측량’에 비유한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에서도 연구자는 다원적 방법의 효과적인 배치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질적 방법으로서의 인터뷰와 양적 방법으로서의 센서스 자료를 병용하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확증(validate)’을 얻으려고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몇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전체적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

창조적분석과정 기술법은 마치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Richardson 2011: 936). 제2언어를 배운다고 하여 제1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사회과학적인 문제의식과 성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이해도 깊어지고 볼 수 있는 독자들도 늘어나듯이 문학적 글쓰기의 도입은 저자와 독자에게 모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시청자의 수와 질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다(Richardson 2011: 936).

Markula와 Denison(2005: 170-180)은 연구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설형식의 기술방식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sup>3)</sup> 물론 구체적인 서술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법과 수사, 스킬 등 수많은 문학적 도구를 참조하게 되지만, 크게는 ‘묘사’, ‘해석’,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과정을 연구에 직접 활용한 슬기, 이원일, 여인성(2013: 46)의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황과 맥락에 대한 묘사를 하는 자료 기술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술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예: 얼굴 표정, 손 동작, 감정)를 함께 묘사함으로써, 등장하는 인물의 성향과 성격을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료가 충분히 묘사된 후에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대화와 상황설명을 적절히 배열하면서 독자들이 등장인물을 실존하는 인물처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 설명의 단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이면에 내재된 의미를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하면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을 추가하여 기술한다. 세세하게는 각 절의 제목을 소설의 한 장처럼 달았고, 구어체를 표기함에 있어 맞춤법의 사용에 엄매이기 보다는 실제 대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다.

Richardson(2011: 934-936)은 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한 CAP가 연구에 활용된 예시를 소개하면서 각각의 문학적 방법을 독립적으로 참고

3) 에세이 형식 등 다른 형태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소설의 전개형식과 내러티브 형식, 각종 기법들이 다른 문학적 글쓰기에 있어서 큰 맥락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어서 CAP를 연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훈련(Richardson 2011: 941-943)<sup>4)</sup>에 대하여 소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글쓰기에 있어서 짚어두고 있다.

- ① 대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자신의 일지(日誌)를 기록하자. 자신의 현재 작업과 대상자에 대한 ‘기분’도 기록하자.
- ② 저술의 자서전을 쓰자. 저술 그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고, 또 어떤식으로 쓰여지는지 기록하는 메타적 기록을 남기자. 이것은 자신이 ‘쓰는 법’을 어떻게 배워왔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 ③ 필드 노트를 ‘회곡’으로 다시 써보자. 누구에게 배역을 맡길 것인지, 대본은 어떤 기록에서 가져온 것인지 필드 노트와 비교해보며 쓰자.
- ④ 심층 인터뷰 기록을 ‘시’로 표현해보며 스스로 실험을 해보자. 특히 단어, 리듬, 비유적 표현, 호흡, 쉬는점, 통어법(syntax), 화자의 말투를 중심으로 써보자. 시로 표현함으로써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에 주목하자.
- ⑤ 서로 다른 글씨체나 폰트 사이즈로 텍스트를 써보고, 지면 레이아웃을 바꿔보자. 종래의 인쇄규칙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자.
- 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3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써보자. 서로 다른 상연법에 따라 드러나는 방식을 비교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자.

4) 자신의 저서 속 ‘창작적이고 분석적인 글쓰기 연습’이라는 장에서 총 21개 사항을 들어 글쓰기 훈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크게는 집필에 앞서서 필요한 준비작업, 집필에 돌입하면서의 습작, 자신의 저술을 체크하기 위한 과정, 퇴고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Richardson은 창조적인 글쓰기인 만큼 어떤 것이 ‘창조적’으로 글을 쓰는 ‘스킬’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글에서는 ‘글쓰기’의 기법에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몇몇 사항을 발췌하였다.

### 2.3. CAP의 평가기준

새로운 글쓰기는 형식은 문화기술지적 작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Richardson 2011: 937). 특히 앞 절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글쓰기에 있어서 다양한 문학 장르의 글쓰기를 복합적으로 참고 가능하기에(다시 말하자면 통일된 하나의 글쓰기가 없기에) 이것이 학술적 저술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종렬(2013: 82)은 서사적 글쓰기를 활용한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이 글이 과연 『한국사회학』이라는 ‘정통 학술지’ 심사에 통과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나의 글을 학문적인 글로 인정해줄까?”라는 걱정을 가졌음을 솔직히 말하고 있다. 최종렬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타당성’(validity)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매 장을 시작할 때 그 장의 내용을 사회학적으로 안내하는 데 적합한 인용문을 골라 배치 하였다. 또한 화자가 인물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신 독자들이 구체적인 세팅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사회학적 이론과 개념들을 제공하였다. 사진의 활용도 영상사회학의 관점을 통해 정당화 하였다(최종렬 2013: 82).”

일반적 소설쓰기와 소설의 형식을 차용한 연구 결과의 기술은 연구과정으로서의 엄정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Denzin 2005). Sparkes(2002)는 소설과 같은 문학 형식으로 기술된 질적 연구의 평가는 연구의 뾰진성(verisimilitude)이 얼마나 지켜졌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ichardson(2011: 937)은 CAP에는 높고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만 하고, 단지 새로운 시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이하와 같은 5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실질적 기여(Substantive contribution) : 이 작품은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가? 사회과학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가?

- ② 미적인 솜씨 (Aesthetic merit) : 이 작품은 미적으로 성공적인가? 쓰여진 텍스트는 해석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예술적으로 쓰여 각 부분은 잘 연결되고 지루하지 않은가?
- ③ 재귀성(Reflexivity) : 저자는 포스트모던의 인식론을 알고 있는가? 저자는 어째서 이 텍스트를 쓰기에 이르렀는가? 저자의 주관성은 이 텍스트의 생산자이며 동시에 결과물인가? 저자는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점을 독자도 파악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가?
- ④ 독자의 반향(Impact) : 감정으로 그리고 지성으로 독자에게 울림(효과)을 주는가?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질문을 낳게 하는가? 독자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가?
- ⑤ 리얼리티 표현(Expression of a reality) : 되살아난 경험의 감각을 신체감각으로서 체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느껴지는가? 그 ‘정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연구대상의 문화나 사회, 개인이나 공동체는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가?

Richardson(2011: 937)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한 학술저작에 대하여 과학과 창작적 예술이라는 두 가지의 렌즈를 모두 가진 ‘사회과학예술’이라는 양식(social science art form)’이라고 평가한다.

스포츠 분야 연구에서 CA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Markula와 Denison(2005: 180)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들을 제시한다.

- ① 실제 구술, 공동체 내부 정보, 상황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삶의 실제 경험, 시점, 목소리를 명확하게 포착하였는가?
- ② 감정에 호소하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는가? 효과적인 장면 설정을 통해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가?
- ③ 서술된 활동이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갖는 의미와 대상자들의 일

상적 행동, 행동하는 이유를 명료한 설명을 통해 묘사하는가?

- ④ 인식 가능한 주제, 테마, 스토리라인과 플롯을 포함하는가? 단순한 역사적 서술 이상의 것으로, 저술 내에서 표현되고 해석된 경험이 특정한 문제, 시각, 갈등, 우려 또는 문제를 고려하여, 주체의 이야기를 더 큰 사회문화적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 2.4. CAP의 연구현황

다양한 질적연구에서 CAP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주요 저널에서도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Richardson(2011: 930)은 CAP로 저술된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의 일부를 장르별로 제시하고 있다.<sup>5)</sup>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소설(fiction story) (Cherry 1995; Diversi 1998a, 1998b, Frohock 1992; Richardson & Lockridge 1998; Rinehart 1998; Shelton 1995; Saprkes 1997; Stewart 1989; Williams 1991; Wilson 1965; Wolf 1992)
- ② 시(poetry) (Baff 1997; Brady 1991; Diamond 1982; Glesne 1997; Borum, in press; Patai 1998; Prattis 1985; Richardson 1992a)
- ③ 희곡(drama) (Ellis & Bochner 1992; Paget 1990; Richardson 1993, 1996a; Richardson & Lockridge 1991)
- ④ 퍼포먼스 텍스트(performance texts) (Dezin 1997; McCall & Becker 1990; Mienczakowski 1996; Richardson 1998, 1999a, 1999b)
- ⑤ 다성법 텍스트(polyvocal texts) (Butler & Rosenblum 1991; Daly & Dienhart 1998; Krieger 1983; Pandolfo 1997; Schneider 1991)

---

5) 해당 업적들은 지면 관계상 전부 참고문헌에 제시할 수는 없지만 Richardson(2011: 943-948)에 각각의 논문 제목과 게재저널들이 소개되어 있다.

- ⑥ 독자낭독(readers theater) (Donmoyer & Yennie-Donmoyer 1995)
- ⑦ 회답 동반 문장(responsive readings) (Richardson 1992b)
- ⑧ 아포리즘(aphorisms) (Rose 1992, 1993)
- ⑨ 희극과 풍자(comedy and satire) (Barley 1986, 1988)
- ⑩ 시각화(visual presentations) (Harper 1987; Jacobs 1984; MaCall et al. 1994)
- ⑪ 우화(allegory) (Lawton 1997, pp.193-214)
- ⑫ 대담(conversation) (Ellis & Bochner 1996b; Richardson & Lockridge 1998)
- ⑬ 저술 스토리 (writing-stories) (Lawton 1997; Richardson 1995, 1997; St. Pierre 1997a, 1997b)

Richardson은 CAP의 기술법을 적용한 자문화기술지, 중층적 기술물, 장르복합 저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업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서양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하나의 장르로서 확고한 위치가 확립되어 저널에의 게재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저널로는 'Sociological Quarterly', 'Symbolic Interaction', 'American Anthropologist',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Journal of Aging Studies', 'Qualitative Inqui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Text and Performance Quarterly', 'Annual Studies in Symbolic Interaction', 'Annual Studies in Cultural Studies' 등이 있다.

정식으로 CAP를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일리노이 대학, 남 플로리다 대학, 네바다대학 라스베가스교,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민속학 강좌 및 문화연구 박사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교육연구협회(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의 회장 Eisner는 교육학 분야의 경우 소설도 박사학위논문으로서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inden(1992)의 학위논문 『이야기와 자기: 홀로코스트에 관한 페미니스트의 내적 반성(Making Stories, Making Selves:

Feminist Reflections on the Holocaust)은 자서전, 학술적 저술, 생존자의 스토리를 상호 연결시킨 CAP방법 적용 연구로 헬렌 후븐 산트마이어상(Helen Hooven Santmyer Prize)<sup>6)</sup> 여성연구부문상을 수상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김준표(2001: 71-76)는 여성(신)학의 수사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성경의 구절을 웅변이 아닌 대화형태의 시나리오로 재구성하여 한 절에 걸쳐 제시하고 분석하는 선구적인 시도를 한 바 있다. 웅변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여성(신)학의 수사학적 성격이 잘 드러날 것이고,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서의 수사학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CAP는 확실히 아직 한국 내 학술 분위기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법론이다. 가장 CAP의 방식과 유사한 실험적 학술적인 저작은 최근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통하여 주로 발표되고 있다. KCI의 저술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4년 자문화기술지 논문이 한국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자문화기술지라는 장르로 쓰여진 논문은 2022년 10월 현재까지 총 251편이 있다. 이중 CAP형식이 시도된 대표적인 저작들로는 최종렬, 최인영(2012), 최종렬(2013), 김성경(2015), 최종희(2016)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KCI 또는 학술대회에 정식으로 발표된 저작들 중에서도, 내용의 전문 또는 일부를 수필이나 자서전, 전지적 시점의 서사 형태로 집필한 실험적인 업적들이다. 양적으로는 전체 자문화기술지 업적들 중에서 소수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파격적인 글쓰기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특히 최종렬(2013: 84-88)은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실험적 시도가 기존의 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성찰<sup>7)</sup>로서 논문에 제시하고 있다. 이하와 같은 구절이다.

6) 헬렌 후븐 산트마이어상은 미국의 작가, 교육자, 사서였고, 서사시 『그리고 클럽의 숙녀들(...And Ladies of the Club)』로 유명한 산트마이어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상이다. 1991년부터 매년 2,5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되고 있다.

7) Richardson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글에 대한 저술스토리를 다시 연구의 결과물로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렬(2013)의 시도 자체가 최종렬, 최인영(2012)의 문화기술지 작업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작업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실험적 저작이 학술적 환경 내에서 튕겨나와지는 모습에 대한 메타적 관찰이기도 한 것이다.

“(전략) 사적 에피소드들의 나열은 에스닉 타자를 연구하겠다고 연구비를 타냈으면서도 실제로 타자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은 한국인 연구자의 ‘무의식적인 저항’과 표피적 삶을 추구하는 에스닉 관광객의 ‘얕은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수사 장치’라는 점을 동료 사회학자마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이해했어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다. (중략) 심사자는 이 글이 학술지가 아니라 다문화거리 안내문에나 실려야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다. (중략) 따라서 나의 글 전체가 피상적이고 자의적이라 비판하는 것이다. 냉소적이고 심지어 조롱하는 듯한 이러한 심사자의 논평은 질적 연구자마저도 실험적인 서사적 글쓰기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최종렬 2013: 86-87).”

이상의 구절은 한국의 학술 환경에서 실험적 시도가 가지는 어려움이 잘 토로되어 있다.

한편 위에 소개한 몇몇 선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문화기술지의 경우 기존의 문화기술지적 글쓰기를 단순히 연구자 자신의 경험으로 치환시키는 수상록이나 기행문 형태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아직까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류영진(2018: 56)은 일본의 성풍속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문화기술지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서 일부 CAP 방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직접적인 녹취록의 인용이나 배경 묘사로 인한 조사 대상자의 신변 문제 및 윤리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명’ 및 ‘묘사’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일부 제한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CAP의 활용을 주된 방법론으로 전면에 내세운 연구논문은 단 1편이 존재할 뿐이다. 한슬기, 이원일, 여인성(2013)은 비판적 문화기술지(비판적 문화기술지도 트랜스포머티브 패러다임에 기반한다)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소설로서 논문을 저술하였고 현재 정식으로 KCI에 등재되어 있다.

### 3. 다문화현장 연구에 있어서의 의의

다문화 현장에 있어서 CAP방법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CAP는 차별 및 소수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비밀 유지 및 보호에 특화된 방법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의 다문화교육 연구에서 연구 윤리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주된 관심이 ‘사회적 타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또는 소수자 집단에 있기 때문이다(조대훈 2014: 35). 연구대상자들이 객관적인 서술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비단 다문화현장 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다문화 연구의 현장은 사례에 따라서는 차별, 섹슈얼리티, 빈곤, 폭력과 같은 인권 및 법률 해석적 상황에 직결되는 부분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이수민, 양난미, 이아라(2021: 788)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알려짐’이 대상자들의 정체성 구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한슬기, 이원일, 여인성(2013: 45-46)과 류영진(2018: 56)이 CAP를 연구에 도입한 가장 큰 이유도 자칫 연구에 참여한 주요 제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권, 개인정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수집된 연구 자료를 직접인용 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CAP로 쓰여진 결과물은 감수성과 공감의 영역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CAP는 문학적 기법들을 활용하는 만큼 어쩌면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문화 속에서의 공감은 서로 다른 민족과 집단들이 함께 공존할 때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김현정 2021: 353)이다. 감수성과 공감은 다문화에 있어서 이성적 이해라는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던져주게 된다. 김지혜(2019 :236)는 다문화소설이 상호문화교육에 역할을 할 수 있음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소설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도출해야 하는가를 중요한 지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어쩌면 CAP는 표현된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어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 분석해 낸 의미나 결과들을 어떻게 표현해 나갈 것인가에 무게 중심을 둔다 할 수 있다.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CAP로 생산된 연구결과물들은 다문화 현장에서 인식 가능한 문제의식(또는 과제)들을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문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읽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감성적 글쓰기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목 역할(최종희 2016: 308)”을 하는 것이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콘텐츠 파워가 주목받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CAP 작업은 다문화 연구에 있어서 지식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도 있으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다문화 갈등 문제에 대하여 독자의 몰입도 높은 이해를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 연구결과의 공유와 발신, 생산된 지식을 연구 대상자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연구자와 당사자들의 자각 및 행동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선 두 번째 의의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문화현장의 연구대상자들이 단순히 다루어져야 할 대상, 또는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나 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 류영진과 김희재(2018: 118)는 연구대상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필요한 방법론이 아닌 대상자에게 필요한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방법론인가는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연구자가 과학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술적이고(더하여 대중적인) 감수성을 가진 성과물은 더욱 친밀하게 연구대상자들에게 다시 공유될 수 있다. 특히 이 작업에 연구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물들이 다문화현장(특히 교육현장에서는)에서 활용 가능한 리얼한 텍스트로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ichardson(2011: 937)은 CAP가 연구실천(research practice)이라

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Chilton과 Leavy(2014)는 연구 성과에 예술적 감성을 더하는 작업을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 높은 연대감과 과제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연구자 자신도 특정한 표현을 정제하고 감정을 신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간혀 있는 표현의 틀(특히 자신이 연구자이기에 쉽게 빠지는 의도적인 외부자 관점 따위)을 자각하게 되며,<sup>8)</sup> 기존의 접근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구도나 가정을 낮설게 느끼고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렬(2013: 86) 역시 자신의 논문에 자신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연구자에게 이러한 성찰”이 생기고, “이를 동료 학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소망이 솟구쳐 올랐다”라고 쓰고 있다. “나를 연구 속으로 데려가는(최종희 2016: 308)”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연구자 그 자신도 CAP를 통하여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지속할 수 있음을 잘 나타내어 준다 할 것이다.

넷째, 비평 등과 공동으로 해당 문제를 관통하는 의의 및 주제의식을 고찰할 수 있게 하고, 융합적 메타분석으로 다문화에 더욱 많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문학이 문화의 한 양식으로서 실천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김지혜 2019: 2)한다면, 문학 분야가 축적해온 심도 깊은 방법론이나 접근방식과 손을 잡게 됨으로써 문학적인 해석들도 충분히 현장을 읽어내는 렌즈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유사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간다면 공통되는 ‘레토릭’을 통하여 현장의 공통된 문화적 배경을 읽어내는 등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혜(2019: 6)의 표현을 빌려 보자면, 쓰는 이도 읽는 이도 자신이 느낀 감각의 기원이 무엇인지 묻고, 자신의 문화적 감각을 메타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자면, CAP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보이는 간극들을 연구자가 포착하고 성찰하는 것이며, 일종의 지식사회학적인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생산물들이 오직 한국 사회의 한국인 독자만이 아니라 다문화의 구성원 전체에게 읽혀질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동일

8) 단, Richardson(2011) 본인도 말하지만, CAP는 어떠한 정책적 제언에 관련된 연구의 경우 사실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책 입안자에게 그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하여 “이 글은 허구입니다”라고 말하고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충돌을 해석해내면서 사회징후를 진단하는 작업들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4. 나가며

이번 짧은 고찰에서는 CAP라는 방법론을 Richardson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다문화 현장에 있어서 가능한 의의들을 짧게나마 짚어보았다. 대부분의 다문화 연구들은 다문화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보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치중(조대훈 2014: 36)하여 왔고,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공유하며 파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방법으로 양적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통합연구의 활용은 몇몇 연구에 불과(이기용 2013: 1201)하기에, 방법론의 다양한 시도와 변주가 연구의 풍부함을 위해서도 필요해 지고 있다 할 수 있다. CAP는 문학적인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모두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느끼고’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고, 본 고찰에서는 CAP를 다문화현장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제언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를 행하였다.

하지만 경계를 허무는 융합적인 실험은 그만큼 과제들 또한 아직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벽은 ‘사회를 그려내는 문학작품’과 ‘문학적으로 서술한 사회과학’ 사이의 차이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해외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연구의 ‘진실성’이 어떻게 보장되는가는 명쾌히 해결되기 어렵지 않으며 적어도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학술적 업적의 평가시스템에 있어서 ‘심사’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렬(2013: 82)도 이야기 하듯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학문세계의 동료(사회)학자라는 칭자”이다.

하지만 이는 CAP를 시도하는 작업들이 축적되며 그 경험적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특정한 틀이 갖춰지는 것은 다시금 CAP를 틀에 가두고자 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될지 모른다. 적어도 융합적 방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경계 자체의 의미가 우선 희미해져 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지점에서 보장받하고자 하고 있다. 만약 그 누가(독자)가 대상자 그 자체이고 더 나아가 대상의 변화가 동반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흔히 말하는 ‘사회과학 논문’의 형식이 그리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CAP는 기존의 연구 성과물 생산방식과 상호참고 되며 함께 새로운 것을 찾아가기 위한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서로를 비춰보며 고쳐나가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텐진(2014: 961)은 “기존의 지배적인 이해를 보완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질적 연구자들은 문예적이거나 가능성을 여는 방법을 택한다”고 말하였다. 현재 CAP는 ‘해체의 작업’보다는 ‘이해의 보완’이라는 역할에 더욱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연구는 지면관계상 풍부한 예시의 제공과 CAP가 가지는 한계와 약점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문학적 텍스트로의 변환과정에서 상실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하여, 동일 현상에 대한 CAP와 기존 사회과학연구의 비교작업 등을 통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문화의 현장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인식과 이해, 공감과 배척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곳이며, 이를 접하는 연구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연구자이자 동시에 실천가의 위치에 서게 됨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아니, CAP는 그러한 자각을 연구자의 내면에서 불러일으켜주는 마중물이기도 하다). CAP는 다문화현장의 다양한 현상을 마주하는 연구자 그 자신이, 또 한 가지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줄 수도 있음이다. CAP가 가지는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 시점에서는 주류의 방법론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채용하여 조금씩 그 활용가치가 커져가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고현정(2013). 자문화기술지의 학문적 적용과정과 무용 자문화기술지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35-53.
- 김성경(2015). 2014 인천아시아게임 남북 여자축기 관람기: 탈북주민과 남한 출신 연구자의 교차하는 마음(들), <문화와사회>, 18, 215-254.
- 김준표(2001). 여성신학의 수사학으로 풀어본 예수의 가르침,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조직신학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2019).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2021).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본 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7), 349-364.
- 노먼, 덴진, 이보나, 링컨(Norman K. Denzin, Yvonna S. Lincoln, 2014). 질적 연구 핸드북, 최옥 외 옮김, 아카데미프레스.
- 류영진(2018). 일본 성풍속점 종사자에 관한 문화기술지, <인권법평론>, 21, 45-91.
- 류영진, 김희재(2018).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CBPR에 대한 메타적 고찰 - 한국과 일본의 연구사례를 통하여, <동북아문화연구>, 57, 99-123.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 이기용(2013).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 유아교육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5(5), 1192-1204.
- 이수민, 양난미, 이아라(2021).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776-793.
- 조대훈(2014). 다문화교육 연구자의 연구윤리-질적연구의 윤리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3(2), 35-50.
- 조지 리처(2007). 소비자사회학의 탐색. 정헌주 등 옮김. 일신사.
- 최종렬, 최인영(2012). 탈영토화된 공공장소에서 '에스니시티 전시하기': 안산에 대한 관광객의 문화기술지적 단상들, <한국사회학>, 46(4), 1-44.
- 최종렬(2013). 관광객, 이방인, 문화기술지자: 한 에스닉 관광 문화기술지에 대한 자아문화기술지, <문화와사회>, 14, 51-96.
- 최종희(2016). 베트남탕방 자아문화기술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93-310.
- 한슬기, 이원일, 여인성(2013). 비판적 문화기술지: 여성 승마 선수로 살아가기, <한국체육학회지>, 52(2), 41-55.
- 土本哲平(츠지모토 텃페이, 2020). 転機におけるキャリア支援のオートエスノグラ

- フイー, 立命館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学位論文.
- Chilton, G., Leavy, P.(2014). Arts-Based Research Practice: Merging Social Research and the Creative Arts, *The Oxfor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 Clifford, J., Marcus, G. E.(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reswell, J. W.(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Sage.
- Denzin, N. K.(2005). Emancipatory discourses and the ethics and politics of representatio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933-958.
- Geertz,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 Geertz, C.(1988). *Works and lives: The anthropologist as author*.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nden(1992). *Making Stories, Making Selves: Feminist Reflections on the Holocaust*,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Markula, P., Denison, J.(2005). Sport and the personal narrative, *Qualitative Methods in Sports Studies*, BERG, 165-184.
- Mertens, D. M.(2010). *Research and evaluation in education and psychology: Intergrating diversity wit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SAGE.
- Richardson, L.(2011). Writing A Method of inquiry,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Fourth edition*. SAGE Publications, 923-948.
- Richardson, L., Pierre, E. A. S.(2005). Writing A Method of inquiry,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 Sparkes, A. C.(2002). *Telling tales in sport and physical activity: A qualitative journey*, Champaign.
- Van Maanen, J.(1988). *Tales of the field: On writing ethnograp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필자 소개

성 명 류영진

소 속 규슈산업대학 경제학부

주 소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마츠카다이 2-3-1

전자우편 ryu@ip.kyusan-u.ac.jp

## Abstract

# A Review of the Creative Analytic Processes Ethnography - The Significance in Multicultural Research -

Ryu, young-jin  
(Kyushu Sangy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reative Analytic Processes Ethnography(CAP)' proposed by Richardson and Pierre. And it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multicultural field research. "CAP" is a methodology that is meaningful in actively utilizing various literary narrative and making readers react emotionally. In this paper, the significance of 'CAP' is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as follows. First, it is appropriate for the confidentiality and protection of participants. Second, it works in the realm of sensitivity and empathy. Third, it induces research practice by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Finally, literary methods such as criticism can be used.

**[Key words]** Creative Analytic Processes Ethnography, Ethnography, Multicultural Research Methodology, Literary Description, Research Practice

투고일 2023. 02. 22 / 심사일 2023. 03. 13 / 심사완료일 2023. 03. 13